

금리인하 기대감, 日규제 숨고르기에... 숨통 트인 증시

코스피 1920대 반등, 이달 첫 상승
日, 추가개별허가 품목 지정 안해
국산화 촉진 유도 등 긍정적 평가
연준 금리인하 압박, 中위안화 약세
전문가 “악재 완화됐지만 예단 일러”



8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가 7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10.90포인트(0.57%) 오른 1920.61로 장을 마감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숨고르기,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대외 악재가 완화되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상승세를 보여 반등세가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코스피는 7거래일 만에 반등해 10.90포인트(0.57%) 상승한 1920.61에 장을 마감했다. 또한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20.80포인트(3.68%) 오른 585.44에 장을 마쳤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전일 당초 예상했던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압박이 커진 점 등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아직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측면

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은 지정하지 않았다. 또 8일 네티즌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 3개 중 일부 규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국산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주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행세칙이 발표되면서 국제 무역에서 일본의 신뢰는 유지하되, 한국만 불편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재확인됐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기존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는 유지하고, 미사일 일부 품목 수입만 지연되기 때문에 한국의 중

간재 수출에는 영향이 없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향후 어떤 물품에 대해 일반품목 제외가 나타날지 미지수지만, 일단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벗어나 막연한 두려움은 해소됐다”며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 차익실현이 나타날 수 있지만, 국산화에 대한 동력은 시작됐고 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의 추가 보복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아직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많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수출허가는 반갑지만 이를 해결의 시작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하다”며 “단기에 양국의 갈등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이날 증시에는 미국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이 반영됐다. 또한 중국 위안화 약세 흐름도 다소 진정됐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무역전쟁 역풍이

추가 금리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다”며 “지난주 금리인하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뉴질랜드·인도·태국 등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한 점에 주목하며 “연준은 반드시 금리를 더 많이, 더 빨리 내려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에반스 총재가 많은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강조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며 “중국의 위안화도 안정을 찾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구혜영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대내외 불확실성 위험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FF선물에 반영된 9월 FOMC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25bp 인하는 60% 대로 낮아진 반면, 50bp 인하는 39.6%로 상승했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데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발품 팔 필요없이 ‘똑딱’... 전원주택, 홈쇼핑서 산다

골드홈, 네이버TV홈쇼핑서
전원주택 판매 시공 개시
전화 문의후 홈플래너와 방문
설계·조경 등 맞춤시공 제공
공사기간·비용 줄일 수 있어



골드홈이 홈쇼핑에서 전원주택을 판매하는 장면.

앞으로 전원주택도 집에서 편안하게 홈쇼핑을 통해 구매·시공할 수 있다. 홈쇼핑 판매 상품은 전화로 문의한 이후 홈플래너와 함께 건축 예정지를 방문하고 상담을 통해 계약을 하면 된다.
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인 골드홈은 최근 회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TV홈쇼핑을 통해 전원주택 판매시공 관련 홈쇼핑을 시작했다.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주택은 1층

짜리 주택 129㎡(39평형), 115㎡(35평형)와 2층형 139㎡(42평형), 106㎡(32평형) 등 4종류로 시공가격은 1억5300만~2억280만원으로 다양하다.
이번 상품은 전원주택 및 농가주택을 신축하거나 재건축을 원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무료상담센터(1800-7677)를 통해 설계부터 시공, 조경에 이르기까지
고객 맞춤형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골드홈은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물론 목조주택, 스틸하우스 등 다양한 골조 형태의 시공이 가능하다. 골드홈은 향후 홈쇼핑을 통해 단독주택 및 펜션, 주상복합,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진용 골드홈 사장은 “홈쇼핑을 통

해 전원주택을 시공하면 집을 지을 때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는 고객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공사 기간과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화 주문으로 주택을 선택하고 내·외부 마감재, 사양 등 모든 것을 건축주가 신경 쓰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한편 골드홈은 홈쇼핑 판매와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다. 홈쇼핑 방송을 보고 주문하는 고객에게는 설계비는 무료이고 싱크대, 신발장, 전기국립 등 총 520만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한편 골드홈은 1999년 경기도 광주에 설립한 중소 건설업체로 총 1000여 세대를 건설한 전원주택 전문업체다.
/이규성 기자 peace@



LH 미얀마에 경협산단 조성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LH는 지난 7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 소재 미얀마건설부(MOC)에서 미얀마 건설부도시주택국(DUHD), 글로벌세아(씨)와 함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아세안(ASEAN) 지역에서 LH가 주도하는 최초의 산업단지로서 미얀마 양곤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야웅니핀 지역에 224만9000㎡ 규모로 조성되며 LH가 40%, 미얀마 정부가 40%, 글로벌세아가 20% 투자한 합작법인(Joint Venture)이 사업시행을 맡아 국내 기업의 안전한 해외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합작계약은 합작법인 구성원의 역할과 투자범위 등을 명확히 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약에 따라 LH는 합작법인을 대표해 전반적인 경영을 관리하며 미얀마 정부는 토지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원조자금(EDCF)으로 전기, 상수,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 외부 인프라 설치를 맡는다.
또한 양 기관은 연내 산업단지 설계를 발주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 및 투자 유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 관련 문의를 미얀마 양곤 대표사무소와 LH 해외사업처를 통해 가능하다.
/이규성 기자

‘金 같은 銀’... 금값 상승에 은도 덩달아 휘훨

상반기 은 판매량 전년비 18배 증가
“가격 변동성 높아 리스크 유의해야”
안전자산 선호가 두드러지면서 금과 함께 은 가격 또한 들쭉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은도 투자처로 유망하겠지만 가격 변동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분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8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은 시세는 전일 대비 40원이 오른 2750원이다. 7월 초만해도 2300원대를 유지하다가 꾸준히 가격이 올랐다.
올 상반기 한국금거래소를 통한 은 판매량도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1톤의 은을 판매한 한국금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1만7800kg의 은을 판매한 것으

로 알려졌다. 전년 대비 약 18배가 늘어난 셈이다.
은 수요에 힘입어 은 투자상품 수익률도 올랐다. 대표적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은 ETF(상장지수펀드)는 지난 한달간 약 15%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덱스 선물은 ETF 또한 6.9%의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금가격의 고공행진이 은 또한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금가격의 상승 속도 대비 다소 느리긴 하지만 은 가격 역시 상승하고 있다.
김수정 SK증권 연구원은 “금가격이 오르면 은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것이 이미 16세기부터 이어져왔다”며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짙어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과 은의 괴리가 크게 벌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며 은의 단기적인 상승세를 기대했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은은 본질적으로 화폐적 속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금의 대체적인 성격을 지닌다”며 “과거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금가격 상승이 시작, 동시에 은 역시 동반 상승해왔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은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대표적 안전자산인 귀금속 시장 수요 또한 지속 높아질

망이다.
하지만 은가격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높아 투자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금의 가격 방향성과 은의 가격이 저평가 된 점을 감안해보면 은 또한 단기적으로 유망한 투자자산이지만 변동성 측면에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인 변동성 측면에서는 금 역시 안정적인 자산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은의 변동성은 금보다 2배 더 크다”고 설명했다.
즉 상승기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역으로 하락기에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투자는 현재 온스 당 16.5달러 선에 머물러 있는 은 가격이 향후 6개월 이내에 20% 이상 상승해 20달러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ujn6326@